

# 유리코 사이토의 일상의 미학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손은신\* · 배정한\*\*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전공 ·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 I. 머리말

1960년대 미학의 한 분과로 등장한 환경미학(environmental aesthetics)은 예술이란 무엇이며, 예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규정하고자 했던 현대 미학의 주요 논제를 넘어 자연 환경, 건조 환경, 경관을 미학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미적 감상과 경험을 연구하는 분야다. 환경미학은 20세기 미학의 주류였던 분석미학이 자연에 대한 미적 감상을 소홀히 하는 경향을 지적하며, 자연미와 그 미적 감상에 주목하고, 자연을 비롯한 환경을 미적 대상으로 다루며, 순수 예술을 무관심적(disinterested) 상태에서 감상하던 기존의 미 향유 방식을 새로운 대상에 맞추어 구성하고자 했다.

환경미학 분야 내의 연구들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환경미학 또한 기존의 미학처럼 미적 대상을 규정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환경미학의 대상이 되는 환경은 무엇이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환경미학이 태동한 이후 칼슨(Allen Carlson)과 벌리언트(Arnold Berleant)를 비롯한 주요 연구자들이 자연 환경에서 시작하여 인간이 영향을 끼치거나 혹은 인간이 건설한 인간 환경(human environment)으로 환경의 범위를 확장해 왔다. 1990년대에 등장한 일상의 미학(everyday aesthetics)은 미학의 대상을 환경의 모든 요소 및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과 사건으로 규정하는 확장된 영역의 미학이다.

일상의 미학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시간을 기반으로 전개되는 삶의 모든 측면을 미학의 대상으로 본다. 이는 20세기 미학의 주류였던 분석미학과는 다른 갈래의 연구인 존 듀이(John Dewey)나 이푸 투안(Yi-Fu Tuan)의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일상의 미학을 구체적·실체적으로 구축한 연구자로는 유리코 사이토(Yuriko Saito)와 토마스 레디(Thomas Leddy)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사이토가 그녀의 논문 "Everyday Aesthetics"(2001)을 기반으로 쓴 저서 『Everyday Aesthetics』(2007)는 환경미학 분야 내에서 일상의 미학이라는 독자적인 연구 영역의 전반적 특성을 일반화한 것으로 평가된다(Carlson, 2014). 본 연구에서는 『Everyday Aesthetics』를 중심으로 사이토의 일상의 미학 이론을 고찰하고, 사이토가 일상의 미학 규정을 위해 이용한 '확장의 전략'과 이에 따른 주요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 II. '일상의 미학'을 위한 확장의 전략

일상의 미학 연구의 대표적 저서인 사이토의 『Everyday Aesthetics』(2007)는 총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은 미적 감상의 대상, 즉 환경미학에서 다루어야 할 미적 대상과 그 범위를 확장하는 전략을 통해 일상의 미학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사이토는 미학의 대상을 예술계 내의 확장된 예술, 즉 예술 제도권 내에 위치한 대지예술, 환경예술 등 동시대 예술이 다루는 범위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범위로 확장시킨다. 환경예술, 대지예술, 퍼포먼스 등의 컨템퍼러리 예술은 전통적 예술과 달리 일상 환경을 미학의 대상으로 상정하는 예술 분야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술들은 여전히 예술계(artworld)라는 기존 미학의 틀 내에 존재하므로 모든 일상 환경의 측면을 다루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사이토는 일상적 환경에 대한 미학을 논의하기 위해 기존 예술 제도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상 환경을 미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관심성'과 같이 예술작품의 감상을 위한 특별한 미적 태도가 아닌 새로운 미적 태도를 취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사이토뿐 아니라, 최근 미학 분야의 여러 연구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특히 환경을 미적 대상으로 다루는 환경미학에서는 미적 경험의 주체가 대상인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존 예술의 틀에서 막 벗어난 환경미학에서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하는 미적 대상은 다름 아닌 환경이다. 사이토는 자연의 개체들, 경관, 건조 환경 및 소비 상품에 대한 미적 감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특히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등장했던 녹색 미학(green aesthetics)을 자연 환경에 대한 미적 감상의 측면에서 논의한다.

이상의 내용이 당시까지 환경미학 분야에서 주로 논의되던 미적 대상으로서의 자연 환경 및 인간 환경에 대한 논의라면, 3장에서는 사이토가 독자적으로 구축한 환경미학의 대상인 '구별된 특징을 가진 대상(distinctive characteristics)'과 '분위기(ambience)'를 다룬다. 사이토는 진기한 특성을 가진 자연물과 어떤 대상다운(like-ness) 특성을 가진 자연 개체들, 그리고 재료의 본질(truth to materials)을 가진 대상을 미적 감상을 하기 위해 적절한 대상으로 보았으며, 하나의 대상이나 재료가 아닌 다감각적·다차원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일상 환경인 분위기의

미학에 대해서도 논한다. 그러나 사이토는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특별하지 않은 일상적 삶에서 미주하게 되는 일시성(transience)의 미학으로까지 다시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사이토는 깨끗한, 더러운, 깔끔한, 지저분한, 정돈된, 또는 정돈되지 않은 일상적 미적 특질을 가진 대상들에 대한 미적 경험과, 일상적 시간성이 더해진 대상으로서 깨진 찻잔이나 낡은 폐허와 같이 더 이상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특별한 미적 감상을 불러일으키는 노화된 외관(aging appearance)의 미학적 특성을 적절한 예증을 통해 해명한다.

마지막으로, 사이토는 확장의 전략을 통해 일상의 미학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덕적-미적 판단(aesthetic-moral judgment)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구별된 특질을 가진 대상'과 '분위기의 미학'에서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극단적인 날씨나 재해가 일어나는 환경에 대한 미적 경험이나, 어질러지거나 비위생적인 일상적 환경에 대한 미적 경험은 어떤 경우 안전이나 도덕적 문제와 상충하기도 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이토가 제안하는 것이 바로 도덕적-미적 판단이다. 도덕적-미적 판단이란 “대상물의 의도나 목적에서 자유로운, 대상물이 만들어내는 감각적 경험에 대한 도덕적 판단”(Saito, 2007: 208)으로, 최종적으로는 삶의 질, 안전, 건강, 소통, 복지 등을 갖춘 미적 복지(aesthetic welfare)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미적 대상과 환경(Sepänmaa, 1995: 15)을 갖춘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판단 기준이라 할 수 있다.

### III. 일상의 미학과 확장의 전략에 대한 비판적 검토

『Everyday Aesthetics』는 미학의 대상과 미적 경험의 범위를 일상 환경의 영역까지 '확장'함으로써 일상의 미학을 규정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득적인 확장의 전략을 통해 일상의 미학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논의의 오류가 발생한다. 이 장에서는 특히 다음의 세 가지, (1) 일상의 미학으로 확장된 미학이 역설적으로 예술계의 제도에 기대고 있지 않은가? (2) 대상의 기능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다움(like-ness)'의 미적 특질은 기능적 특성에 기반하는 것이 아닌가? (3) 도덕적인 것은 미적인가? 의 문제를 통해 사이토의 일상의 미학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첫 번째 의문은 일상의 미학으로 확장된 미학이 역설적으로 여전히 예술계(artworld)라는 제도에 기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사이토는 기존의 예술계 내에서 정의된 예술 중심적 미학, 즉 환경예술, 대지예술 등이 일상미학을 다루기에 역부족이므로 이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Saito, 2007: 42), 자연 환경을 미적으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미적인 대상으로 이해하고 바라보려는 감상자의 '의지'가 필요하다

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감상자의 '의지'를 일상 환경을 미적으로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미적 태도라고 상정한다면, 환경에 대한 교육이나 애착을 통해 얻게 되는 이와 같은 적극적인 미적 감상 태도는 누구나 일상에서 평범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제된 특별한 취향(a refined taste)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감상자는 일상의 미를 경험하기 위해 여전히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과 같이 특별한 미적 감식안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겨난다. 이와 같은 논의상의 오류에 따라, 일상의 미학에 대한 사이토의 주장은 자칫 뒤샹의 '샘(The Fountain)'이 갤러리에 놓인 것인가—예술계 제도 내에 놓인 것인가—그렇지 않은가의 물음을, 즉 일상 환경이 거대한 갤러리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문을 낳는다.

두 번째 의문은 사이토가 독자적으로 구축한 일상의 미학 대상 중 하나인 대상의 기능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다움(like-ness)'이라는 미적 특질에 관한 것이다. 사이토에 따르면 독특하고 고유하게 구별되는 특성인 '~다움(like-ness)'을 가진 어떤 대상은 일상의 미적 특질을 가진 대상이다. 사이토가 예시로 들고 있는 백조다움, 돼지다움 등 특정 개체다움 또는 대상다움의 특질을 살펴보면, 대상의 본질적이고 특징적인 기능이 적절하게 표현 또는 발현된 경우, 이를 미적으로 감상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Saito, 2007: 105-107). 그러나 다른 장에서 사이토는 미적인 것은 꼭 기능성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더럽거나 정돈되지 않은, 지저분한 상태의 환경이나, 깨진 찻잔처럼 더 이상 제 기능을 담당하기 어려운 대상일지라도 우리는 이를 충분히 일상 환경의 미적 특질로 감상하게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만약 대상의 기능성에 기반한 '~다움'의 미적 특질과 기능성에 기반하지 않는 후자의 미적 특질이 일상의 미학이라는 영역 내에서 각각 독자적 범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은 기능성에 기반하여 미적 특성이 발현되며, 어떤 것은 대상 자체의 또 다른 특성에 의해 미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각 범주가 일상의 미학이라는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면, 전자의 미적 특질인 '~다움'에서는 기능성 이외의 어떤 특징, 즉 후자와 일상의 미학 영역 내에서 공통분모를 가지는 어떤 특징을 짚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이토가 설명하는 '~다움'의 미적 감상은 대개 대상의 기능적 특성에 기반하고 있다. 예술에 대한 미적 감상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능성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기존 미학의 견해는 차치하고라도, 이와 같은 기능성에 기반한 '~다움'이라는 대상에 대한 미적 감상의 해석은 “과연 기능적인 것에서 느끼는 '쾌'가 미적 '쾌'와 같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낳게 한다. 또한 이는 사이토가 마지막 장에서 일상의 미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보완하기 위해 제안하고 있는 5장의 도덕적-미적 판단과도 상충된다. 왜냐하면 도덕적-미적 판단의 정의는 “대상물의 의도나 목적에

서 자유로운, 대상물이 만들어내는 감각적 경험에 대한 도덕적 판단”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대상물의 기능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기능적인 것은 미적인가”와 같은 문제가 일종의 ‘범주의 오류’에 속한다면, 이 범주의 오류는 마지막 장에서 제안된 도덕적-미적 판단의 개념에서도 발견된다. 도덕적-미적 판단 개념에서의 범주의 오류는 “도덕적인 것은 과연 미적인가?”의 문제다. 앞서 논의했던 바와 같이, 미적인 것과 기능적인 것은 서로 필요충분조건이라 할 수 없다. 이처럼 미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도 정의상 서로 필요충분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 대상물이 만들어내는 감각적 경험이란 분명히 미적 경험을 의미하고 있지만, 이는 사이토가 제안하는 존경할 만하고(respect), 사려 깊으며(considerate), 이용자에게 민감하고(sensitivity), 겸손하며(humility), 반응적인 것(responsiveness)과는 다르다. 물론 일상의 미학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 재해나 위협의 감각적 경험을 단순히 미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안전이나 도덕적 문제와 상충될 수 있으므로,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도덕적 접근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이토가 제안하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심지어 건강, 안전, 삶의 질, 소통, 복지 등이 반드시 미적인 것과 연결된다고 할 수는 없다. 사이토는 도덕적 가치와 미적 가치 간의 연결고리를 설명하기 위해 ‘미적인 것’의 역할을 도덕적 가치와 인간의 삶 또는 사회를 연결하는 것이라 제시하였으나(Saito, 2007: 242), 과연 미적인 것이 여기에서 언급된 모든 가치들의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가는 여전히 불분명해 보이며, 또한 이 경우 사이토가 여러 도덕적 가치를 단지 좋은 것으로 평가함으로써 미적 가치와 혼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 IV. 맺음말

본 연구는 환경미학 분야 내의 한 독자적 영역으로서 유리코 사이토의 ‘일상의 미학(Everyday Aesthetics)’의 주요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사이토는 일상의 미학을 규정하기 위해

확장이라는 전략을 사용했다. 본 연구는 확장의 전략이라는 틀에 따라 사이토의 일상의 미학 이론을 재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이론적 쟁점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사이토의 일상의 미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 환경에서의 미적 경험을 고찰한다는 점에서 조경학적 의의를 갖는다. 조경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 환경을 구축하는 분야다. 오늘날의 조경은 공원과 정원뿐 아니라, 도시 환경과 거리 환경, 마을, 커뮤니티 공간 등 우리의 일상 환경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특히 디자인을 통해 미적 경험의 장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일상의 미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또한 오늘날의 환경미학 분야는 자연환경미학, 인간환경미학, 일상의 미학 등 각 연구자의 견해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해 오던 시기를 지나, 수많은 연구와 국제회의 등이 활발히 진행되는 성년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구적 사고 위주의 연구에서 벗어나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권의 연구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Carlson, 2014: 22-23) 등, 앞으로 조경 이론 분야와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 참고문헌

1. 배정환(1996) A. Carlson의 객관주의적 자연감상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조경학회지 24(2): 25-42.
2. 임성훈(2006) 환경미학. 미학대계 3: 현대의 예술과 미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3. 조정송, 배정환(1994) 환경미학과 ‘참여’ 개념의 구조와 문제. 미학 19: 225-58.
4. 조정송(2006) 환경설계와 미학. 조정송 등. LAnD: 조경·미학·디자인. 도서출판 조경. pp.234-243.
5. Carlson, A.(2014) Ten steps in the development of western environmental aesthetics, ed. Martin Drenthen and Jozef Keulartz. Environmental Aesthetics: Crossing Divides and Breaking Ground,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pp.13-24.
6. Saito, Y.(2001) Everyday aesthetics. Philosophy and Literature 25: 87-95.
7. Saito, Y.(2007) Everyday Aesthe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8. Sepänmaa, Y.(1995) Aesthetics in practice: Prolegomenon, ed. Martti Honkanen. Practical Aesthetics in Practice and in Theory. Helsinki: University of Helsinki.